

## 대학 창업교육이 진로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

안태욱\*\*

군산대학교 창업전담 교수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 문 요 약

창업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성 역량은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함에 있어서 창업분야에 대한 단편적인 효과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을 통한 역량함양이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준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검증하였다. 2016년 8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별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 393개의 표본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협업적의사소통능력, 창의적문제해결능력은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쳤고,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sup>2</sup>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정(+)<sup>3</sup>의 영향을 미쳤지만 창업교육에 의한 창의성 역량들은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대학의 창업교육의 효과 검증에서 창업교육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을 고취·함양시킴으로써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창업교육의 중요성 검증과 향후 다양한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학생창업 영역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창의성 역량,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 1. 서론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에서 변화의 시점에서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함양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대학 교육은 여전히 정답을 빨리 찾는 주입식·암기식 교육 중심에서 크게 변화되지 못하였고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접근과 창의적인 인재를 함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aeed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창업교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시대적으로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장기화 되어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에서부터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과 인재상을 키워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상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의 구조속에서 대학이 진정 시대가 요구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군산대학교 창업전담 교수, hellocco777@gmail.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cau.ac.kr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교육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학 교육 콘텐츠와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은 힘들다.

Garavan & O’Cinneide(1994)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립적 태도를 고취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Samwer Mwasalwiba(2010)의 연구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이 개인의 가치, 태도, 의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이 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중요해지는 시대에도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며, 무엇보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은 결코 과감할 수 없다.\*

Fretschner & Weber(2013)는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창업의 지, 사업성과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Chen et al., 1998).

하지만 본 연구는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자기 주도적 행위에 창업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 창업교육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분석과 가치증명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연구 배경

### 2.1. 창업교육과 창의성역량

4차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재와 융합형인재 육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미래세대를 준비하기위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아젠다(Agenda)가 바로 창업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제시

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창업 활성화이다. Wennekers et al.(2005)의 연구에서 창업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Vygotsky(2004)는 창의성에 대해서 한 개인의 내면의 정신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과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가 역량을 함양해야하며 그중에서도 대학생에게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창의성 역량을 본 연구에서는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미래의 인재상을 4가지 핵심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 하고 있다.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2012)에서 강조한 4Cs 역량은 미국의 21세기 선진 교육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조를 하였다. 4Cs는 비판적 사고(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협업 및 협력능력, 높은 업무성과를 위한 혁신 및 창의력이다. 이러한 4Cs 역량의 함양은 대학교육에서 학과 전공교육을 통하여 높이는 쉽지 않다. 그러나 창업교육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며, 문제정의 및 해결, 아이디어를 창출, 팀 협력활동,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

Piascik(2015)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비즈니스, 가족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식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Lippl(2013)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aird & Stull(1992)은 대학에서 졸업 후에도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ift et al.(2010)의 연구에서 협업 능력을 팀워크, 그룹작업,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De Bono(1995)의 연구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으로 창조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Morris et al.(2013)은 창업가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창업가역량을 제시하였다. 창업가 역량은 과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태도, 행동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역량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Zhao et al., 2005).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 기업가적 자질과 창업가 역량을 함양시킴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 EBS TV '다큐프라임'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대혁명' 내용 발췌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의 통한 창의성 역량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2.2. 기업가정신

Timmons(1999)는 기업가정신을 부족한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며 창조적인 행동이라 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이라고 주장하였다. Morris & Kuratko(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행동적 접근법의 구성요소는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을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핵심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하위요소는 세 가지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첫째, 진취성이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경쟁과 변화의 인식을 통해 통찰력을 볼 수 있는데 진취성에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Lumpkin & Dess(1996)의 '시장 안에서 적극적 경쟁을 위한 의지, 경쟁상대를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창출, 경쟁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우위와 지위를 갖춰 경쟁업체와 적극적인 도전하려는 자세'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혁신성은 창업가가 혁신을 특별한 도구로 인식하고 서로 상이한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로서 변화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Morris et al., 2008).

셋째, 위험감수성이다. Hitt et al.(2001)는 단순히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기업가정신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취적, 혁신적으로 행동하려는 행동적 접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또한 Morris & Lewis(1995)의 연구에서는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개인의 위험감수 성향과 더불어 사고방식과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투명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업가정신이 어떤 역할과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2.3. 자기효능감

사회진출함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자신감, 철학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대학 교육에서도 대학생들이 사회진출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Zimmerman(2000)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과업에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설명하였다.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인 자기조절 효능감, 과업도전감, 자신감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표현하고 있다(Bandura, 1993; Schunk, 1991).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수행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 역량에 대한 확실성이고 인지된 능력에 대한 강도, 믿음으로서 구체화된 수준보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의 강도를 말한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확신이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 정도라고 한다.

도전적인 과업과 구체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며(Latham et al., 1991),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향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고, 편하며 조절 가능한 쉬운 과제만을 선호하며 선택하려 행동한다(Bandura, 1977). 자신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기능이 필요하다. 즉, 자기-관찰을 통해서 또한 자기-판단 인지과정 뿐만 아니라 자기-반응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효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창업교육을 통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 2.4. 진로준비행동

대학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학 지원사업을 통하여 평가요소에 취업률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평가지표로 강조 되어 대학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의해 한쪽 측면만을 강조 되어 기형적인 역할로 활동하였지만 사실 대학은 진리에 대한 탐구와 함께 진로 탐색과 준비 측면으로 볼 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수립한 미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실행뿐만 아니라 진로활동과 진로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함께 준비하고 개발하는 행동이다(Moon & Bak, 2013).

Oh(2014)는 개인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적성, 능력 기타 조건들을 갖춰서 향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진

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자신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에 대한 목표달성, 정보수집 활동으로 필요한 기본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며, 진로결정 이후 결정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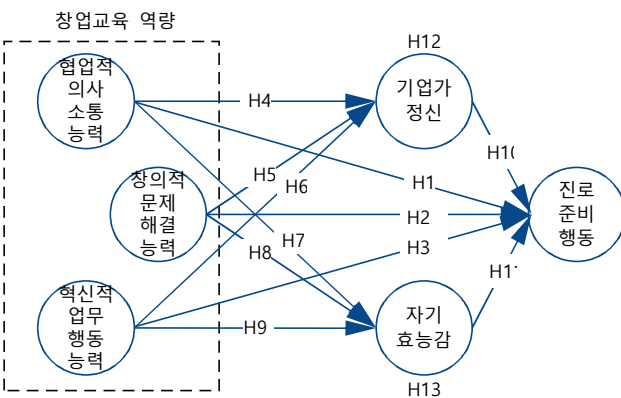
(Phillips & Pazienna,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역량과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측면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검증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III. 연구설계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인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이 창의성 역량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어떤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IV. 실증분석

#### 4.1 표본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전국에 있는 창업활성화를 활발하

게 하고 있는 대학교를 선정하여 2016년 9월 6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하여 393개의 자료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4.2.1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상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측정지표 적용기준을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0.6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Nunnally, 1978). 신뢰도 분석 결과 협업적의사소통능력(.899), 창의적문제해결능력(.862), 혁신적 업무행동능력(.852), 창업가정신 (.819), 진로준비행동(.713), 자기효능감(.694)로 모두 기준에 충족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을 모두 탐색적 연구를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회과학분야에서 인정하는 신뢰 수준 및 적합한 과정을 진행하였다.

##### 4.2.2 타당성 분석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요인들 사이 인과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변수들을 동질 요인으로 가능한 최소의 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 시켜 요인을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베리맥스(Varimax)에 의해 실시한 요인분석방법이다. 기본적으로 고유치 1이상 요인만을 선택하였고, 요인적재량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에서 0.4이상 되는 수치만 유의적 기준으로 판단해 검증하였다. 각 가설에서 서로의 개념 간의 상관관계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시한다(배병렬, 2009). 각 변수별 관련 개념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1>와 같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통하여 개념 간의 관련성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은 실증적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요구되는 기본 선행조건이다.

<표 1> 개념 간 상관관계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창업가 정신	자기 효능감	진로 준비 행동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710***(.025)	1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707***(.031)	.783***(.029)	1				
기업가 정신	.502***(.019)	.561***(.017)	.457***(.020)	1			
자기 효능감	.380***(.019)	.415***(.016)	.366***(.020)	.682***(.017)	1		
진로준비 행동	.421***(.022)	.482***(.020)	.441***(.025)	.675***(.021)	.511***(.022)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적합지수가 기준치에 합당하여 연구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델의 모수추정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Hair et al. (2006)공식을 통해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를 확인적 요인 분석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 협업적 의사소통능력(.901), 창의적 문제해결능력(.863), 혁신적업무행동능력 (.856), 기업가정신(.820), 자기효능감(.736), 진로준비행동(.738) 개념신도를 나타내어 모두 0.6이상이므로 합당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언급한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사용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Fornell & Larcker(1981)이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 공식을 계산하기보다는, Hair et al.(2006)이 주장한 공식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값을 제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배병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ir 등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표 2>에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는 측정치에 대해서 서로 평가 분석하였다.

<표 2>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분석

	AVE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기업가 정신	자기 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개념 신뢰도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0.645	1						0.901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0.559	.504	1					0.86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0.545	.500	.613	1				0.856
기업가정신	0.602	.252	.314	.208	1			0.820
자기효능감	0.588	.144	.172	.134	.465	1		0.736
진로준비행동	0.489	.177	.232	.194	.456	.261	1	0.738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 추출(AVE)값이 각 개념들 사

이의 상관계수에 대한 제곱값( $\phi^2$ )이 기준에 웃도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다. 판별 타당도는 AVE에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 $AVE > \phi^2$ )이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배병렬, 2009). 다만,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상관계수 제곱이 0.613으로 AVE 값(0.545)보다 조금 높아 판별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된다.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의 카이제곱 비교 분석표를 통해 제약모델을 추정하면,  $\chi^2(20) = 277.541$ , 비제약모델을 추정하면  $\chi^2(21) = 102.432$ 가 얻어졌다. 따라서 두 개념들 간에는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이 자유도 1차이가 날 때 5%의 유의수준에서 3.84보다 커야하는데, 두 모델의 카이제곱 값의 차이는  $\Delta df=1$ ,  $\Delta \chi^2=175.109$  이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 4.3 가설검증

#### 4.3.1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의 적합성

$\chi^2/DF$ , RMR, GFI, AGFI, RMSEA는 연구모형의 절대적인 모형 적합성 평가지수이다. 본 연구모형 절대적합도로 판단하였을 때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양호한 수준( $\chi^2/DF = 2.176$ , RMSEA = 0.055)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chi^2$  값 수치 자체의 의미보다는  $\chi^2/df$  비율 값이 5이하일 때 바람직하고, 3 이하일 경우에는 잘 맞는 적합도로 해석한다(Kline, 2005). 특히 RMSEA는 .05에서 .08사이 범위는 적절한 수준이며 .05 이하일 경우는 매우 양호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GFI=0.909, RMR=0.027, NFI=0.906, IFI=0.947, TLI=0.936, CFI=0.947 모두 적합도 0.9 이상에 해당되고 일부 AGFI=0.882, RFI=0.888은 수치에 상당히 근접되어 있으므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 4.3.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표 3>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직접효과)

가설	경로		Regression Weights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E.	C.R.	P	결과
H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진로준비행동	-0.018	-0.022	0.077	-0.233	.816	기각
H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진로준비행동	0.055	0.054	0.111	0.501	.616	기각
H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진로준비행동	0.105	0.131	0.088	1.194	.232	기각
H4	협업적 의사소통	기업가정신	0.233	0.266	0.077	3.009	.003	채택

가설	능력	행동	β	β	β	β	β	β	결과
H5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기업가 정신	0.462	0.431	0.111	4.17	***		채택
H6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기업가 정신	-0.064	-0.076	0.091	-0.708	.479		기각
H7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자기효능감	0.151	0.181	0.075	1.996	.046		채택
H8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자기효능감	0.306	0.3	0.106	2.898	.004		채택
H9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자기효능감	-0.017	-0.022	0.089	-0.196	.845		기각
H10	기업가 정신	진로준비행동	0.483	0.507	0.076	6.396	***		채택
H11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0.169	0.168	0.065	2.588	.010		채택

\*\*\*는 .001 이하 유의수준에서 의한 유의함을 의미함  
 $\chi^2=461.291, DF=212, p<.00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 진로준비행동(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표준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166)가 통계적으로(p=.018) 유의하며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표 4>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매개효과)

경로		Estimate	S.E.	C.R.	P
H12-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기업가정신->진로준비행동	0.225	0.076	2.966	.003
	기업가정신->진로준비행동	0.567	0.067	8.422	***
H12-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기업가정신->진로준비행동	0.464	0.109	4.255	***
	기업가정신->진로준비행동	0.567	0.067	8.422	***

경로		Estimate	S.E.	C.R.	P
H13-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0.148	0.075	1.968	.049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0.194	0.063	3.065	.002
H13-2	창의적 문제해결->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0.302	0.105	2.881	.004
	자기효능감->진로준비행동	0.194	0.063	3.065	.002

\*\*\*는 .001 이하 유의수준에서 의한 유의함을 의미함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 진로준비행동(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표준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간접효과(=.269)가 통계적으로(p=.002) 유의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준비행동에서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검증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 5>은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매개효과분석에서는 가설 12-3, 13-3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 12-1, 12-2, 13-1, 13-2 모두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매개효과)

창업가정신,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결과		
H12-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진로준비행동간 관계에서 창업가정신은 완전매개모형이며 간접효과가 있다.	완전매개 (간접효과)
H12-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준비행동간 관계에서 창업가정신은 완전매개모형이며 간접효과가 있다.	완전매개 (간접효과)
H12-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창업가정신에 유의하지 않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음. 매개효과 검증요건을 성립하지 못함.	매개효과 없음
H13-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진로준비행동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모형이며 간접효과가 있다.	완전매개 (간접효과)
H13-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진로준비행동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모형이며 간접효과가 있다.	완전매개 (간접효과)
H13-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하지 않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음. 매개효과 검증요건을 성립하지 못함.	매개효과 없음

## V. 결론

### 5.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기업가정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긍정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대학 창업교육의 다양한 효과 부분에 대해 검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기업가정신)의 효과에 대해 창업 영역인 창업의지, 기업성과 등을 중심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Hornsby et al., 1993; Kantis et al., 200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창업교육의 창의성역량을 통해 진로요인,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창업교육을 통해서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함양하는 것이 대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자신의 진로 개척을 위해 진로준비행동에 직, 간접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매개변수인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의 효과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변수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정책적 측면에서 향후 대학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기업가정신

함양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설계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교육의 콘텐츠 내용중에서 창의성역량에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거나 방법론, 내용, 교수법 등에 대해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창업교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정량적인 학생창업건수, 매출, 프로그램 몇건 등에 의한 대학 창업교육의 내실성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어렵다. 그럼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교육의 정성적 효과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와 평가요소, 기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91-91.

Latham, G. P., Winters, D. C., & Locke, E. A.(1991). Cognitive and Motivational Mediators of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n Performa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ronto.

Loke, E., & Latham, G.(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Mathisen, G. E., & Bronnick, K. S.(2009). Creative self-efficacy: An interven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1), 21-29.

Morris, M. H., & Lewis, P. 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 REFERENCE

- Baird, J., & Stull, J.(1992). *The Seven C's of Communi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Sage.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De Bono, E.(1995). Serious Creativity. *The Journal for Quality and Participation*, 18(5), 12-18.
-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rdner, H.(1993). *Creating minds: An anatomy of creativity seen through the lives of Freud, Picasso, Stravinsky, Eliot, Graham, and Gandhi*. BasicBooks.
- Hitt, M. A., Rreland, R. D., Camp, S. M., & Sexton, D. L.(2001). Strategic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trategies for wealth cre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6-7), 479-49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2006). *Multivariate Date Analysis*, 6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Janssen, O.(2000). Job Demands, Perceptions of Effort-reward Fairness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3, 287-302.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